<h1>나 혼자만 레벨업-6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wbed755389a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6화</p>  
<p>희생자 중에는 김 씨와 친했던 박 씨도 있었다.</p>  
<p>이중 던전에 들어온 것은 출발하기 전 모두의 투표로 결정한 일이었지만, 이미 이성을 상실한 김 씨의 머릿속에는 당시의 기억이 까맣게 지워져 있었다. 송 씨가 김 씨에게 말했다.</p>  
<p>"스스로 가고 싶으니 칼은 치워 주겠나?"</p>  
<p>김 씨는 단칼에 거절했다.</p>  
<p>"영감을 어떻게 믿고? 잔말 말고 앞장 서."</p>  
<p>송 씨는 나직이 한숨을 내쉰 뒤 제단으로 걸었다. 김 씨는 그의 등에 검을 겨눈 채로 뒤따라 갔다. 진우는 두 사람을 보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.</p>  
<p>'송 씨 아저씨의 잘못이 아니다.'</p>  
<p>모두가 동의했던 일이었다.</p>  
<p>일이 틀어졌다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송 씨 아저씨에게 떠넘기는 건 너무나도 비겁한 짓이었다.</p>  
<p>'하지만...'</p>  
<p>진우에게는 김 씨를 막을 힘이 없었다.</p>  
<p>D급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김씨와 E급 중에서도 최약체에 속하는 진우.</p>  
<p>힘의 차이는 명확했다.</p>  
<p>더군다나 지금은 다리까지 성치 않은 상태.</p>  
<p>김 씨에게 대들었다간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주희까지 잘못될 수 있었다.</p>  
<p>"젠장."</p>  
<p>진우는 질끈 눈을 감았다.</p>  
<p>오늘만큼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운 날이 없었다.</p>  
<p>그 사이 송 씨가 제단 위에 올라섰다.</p>  
<p>화르륵!</p>  
<p>그러자 제단의 바깥 부분에서 붉은 불꽃이 하나 치솟았다.</p>  
<p>다들 침을 꼴깍 삼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황을 주시했다.</p>  
<p>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.</p>  
<p>불꽃 하나가 생긴 것이 전부였다.</p>  
<p>"...?"</p>  
<p>한참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, 송 씨를 제단 위로 떠민 김 씨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들까지도 당황하기 시작했다.</p>  
<p>김 씨가 진우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"이 봐, 성 씨. 이게 아니야?"</p>  
<p>진우도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저도 잘..."</p>  
<p>제물이 될 사람이 제단 위에 올라가면 '신앙심을 증명하라'는 셋째 규율이 완성될 줄 알았다.</p>  
<p>'제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나?'</p>  
<p>하지만 나쁜 소식은 아니었다.</p>  
<p>제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송 씨 아저씨를 구할 방법이 있다는 소리였다.</p>  
<p>진우의 표정이 밝아졌다.</p>  
<p>진땀을 흘리며 일어서려는 진우를 근처에 있던 헌터 두 사람이 잽싸게 부축했다.</p>  
<p>"제단을 살펴볼 수 있게 그리로 옮겨 주세요."</p>  
<p>"진우 씨, 아직 상처가..."</p>  
<p>주희도 진우를 따라 일어났다.</p>  
<p>너무 많은 마력을 소모한 탓에 주희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.</p>  
<p>그녀의 수고가 있었기에 출혈이나 통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.</p>  
<p>'서둘러야 돼.'</p>  
<p>주희의 상태, 김 씨의 분노, 송 씨의 상처, 그리고 다른 헌터들의 공포까지.</p>  
<p>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헌터들의 부축을 받아 계단에 도착했다.</p>  
<p>"제단 위쪽으로 올라가죠."</p>  
<p>부축하던 두 사람은 잠깐 흠칫했으나 곧 진우를 믿고 올라섰다.</p>  
<p>그러자 불꽃 세 개가 더 올라왔다.</p>  
<p>화르륵!</p>  
<p>화르륵!</p>  
<p>화르륵!</p>  
<p>진우의 눈이 번뜩였다.</p>  
<p>'사람 수와 같다.'</p>  
<p>송 씨와 진우, 그리고 진우를 부축한 두 사람.</p>  
<p>불꽃은 사람 숫자에 맞춰서 솟아올랐다.</p>  
<p>네 개의 불꽃이 제단의 바깥쪽에서 원을 그려 가고 있었다.</p>  
<p>'불꽃 간의 간격을 볼 때 앞으로 두 개만 더 생기면 원이 완성된다.'</p>  
<p>아무래도 남은 사람이 전부 올라와야 무언가가 시작되는 구조인 듯했다.</p>  
<p>진우가 송 씨에게 물었다.</p>  
<p>"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릴 구조하러 다른 헌터들이 올까요?"</p>  
<p>송 씨는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"오늘이 게이트가 생긴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여. 지원이 오기 전에 저것들이 먼저 움직이겄지."</p>  
<p>"D급 게이트라고 너무 오래 방치해뒀군요."</p>  
<p>"협회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은감."</p>  
<p>게이트는 7일이 지나면 완전히 열린다.</p>  
<p>그 시간 안에 던전의 보스를 잡아 게이트를 닫히게 만드는 것이 레이드의 진짜 목적이다.</p>  
<p>그러지 못한다면 던전 안쪽에 갇혀 있던 마수들이 바깥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게 된다.</p>  
<p>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.</p>  
<p>의자에 앉은 거대한 신상은 여전히 거만한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.</p>  
<p>'저런 것이 밖으로 나간다면...'</p>  
<p>그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.</p>  
<p>물론 그전에 먼저 이 방의 헌터들 전원이 이동을 시작한 신상이나 석상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지만.</p>  
<p>망연히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다.</p>  
<p>진우는 주희와 김 씨를 불렀다.</p>  
<p>"두 사람도 올라와요."</p>  
<p>주희가 먼저 제단 위로 올라왔다.</p>  
<p>망설이던 김 씨도 금방 따라 올라왔다.</p>  
<p>불꽃 두 개가 솟아오르며 원이 완성됐다.</p>  
<p>화르륵!</p>  
<p>헌터들이 화들짝 놀랐다.</p>  
<p>"아니?"</p>  
<p>"이게 왜 이래?"</p>  
<p>진우의 예상대로 변화가 일어났다.</p>  
<p>'온다.'</p>  
<p>제단의 가장 바깥 테두리에서 조그마한 푸른색 불꽃들이 차례대로 솟아오르며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촘촘하게 이어진 푸른 불꽃은 대충 잡아도 30개는 넘어 보였다.</p>  
<p>'34, 35, 36.'</p>  
<p>빠르게 수를 세던 진우는 원이 완성되고 나서 푸른 불꽃이 모두 36개임을 알았다.</p>  
<p>'사람 수대로 솟아오른 붉은 불꽃 여섯 개, 그 바깥쪽에 생긴 푸른 불꽃 36개. 불꽃의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?'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덜컹-!</p>  
<p>굳게 닫혀 있던 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열렸다.</p>  
<p>헌터들은 반사적으로 움찔했다.</p>  
<p>"윽...!"</p>  
<p>다들 열린 문 쪽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, 성가대였다는 청년의 최후를 본 터라 차마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.</p>  
<p>앞서 나가다가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.</p>  
<p>답을 요구하듯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로 일제히 모였다.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입을 일자로 다물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아직은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.</p>  
<p>문이 열린 것이 함정인지, 아니면 마지막 규율을 지켜서 나갈 수 있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.</p>  
<p>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쏠려 있을 때, 방 전체에서 기분 나쁜 소음이 울려 퍼졌다.</p>  
<p>끼이이이익-</p>  
<p>끼이이이익-</p>  
<p>여섯 명의 고개가 사방으로 빠르게 돌아갔다.</p>  
<p>"이건 또 뭐야?"</p>  
<p>"다, 다가왔어!"</p>  
<p>"이것들 방금 전부 움직였다고!"</p>  
<p>헌터들의 호흡이 가빠졌다.</p>  
<p>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만 움직이는 줄 알았던 석상들이 이전보다 몇 걸음 가까워져 있었다.</p>  
<p>짧은 순간이었지만 진우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.</p>  
<p>'아니, 석상이 움직인 게 아니야. 움직인 것은 석상 발밑의 받침대다.'</p>  
<p>금방 고막을 때렸던 기분 나쁜 소음은 아마도 석상을 받히고 있는 받침대가 바닥과 마찰하며 일어난 소리인 듯했다.</p>  
<p>"...이젠 또 안 움직이네?"</p>  
<p>김 씨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.</p>  
<p>모두가 석상들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, 진우는 시선을 내리깔아 푸른 불꽃을 살폈다.</p>  
<p>하나씩 꺼지기 시작한 푸른 불꽃은 이미 세 개나 사라져 있었다.</p>  
<p>끼이이이이익-</p>  
<p>누군가 외쳤다.</p>  
<p>"뭐, 뭐야? 어느 쪽이야?"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소음은 자신 쪽이었다.</p>  
<p>자신의 정면 방향에 위치한 석상들이 조금 더 가까이 이동해 있었다.</p>  
<p>'어째서 내 쪽만...?'</p>  
<p>혹시 한눈을 팔았기 때문인가?</p>  
<p>진우는 확인을 위해 눈을 감았다.</p>  
<p>그러자 다시 소음이 울렸다.</p>  
<p>끼이이이익-</p>  
<p>눈을 뜨자 소음이 멈췄다.</p>  
<p>확실히 석상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다.</p>  
<p>"뭐냐고 씨벌!"</p>  
<p>"이, 이건 뭘 어떡해야 하는 겁니까?"</p>  
<p>진우가 소리쳤다.</p>  
<p>"전부 석상들한테서 눈을 떼지 마세요!"</p>  
<p>생각해 보면 석상들이 처음 제단 쪽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도 아까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쏠려 있었을 때부터였다.</p>  
<p>'이 녀석들은 보지 않을 때 다가온다.'</p>  
<p>순간 푸른 불꽃이 하나 더 꺼졌다.</p>  
<p>그러나 일행들이나 석상들에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.</p>  
<p>'혹시...?'</p>  
<p>진우는 석상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손목을 들어올려 시계를 확인했다.</p>  
<p>'역시.'</p>  
<p>푸른 불꽃은 대략 1분에 하나씩 줄어들고 있었다.</p>  
<p>'푸른 불꽃은 타이머다.'</p>  
<p>36개의 푸른 불꽃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제단 안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이 세 번째 규율의 핵심인 듯했다.</p>  
<p>즉 전원이 석상을 감시하고 있는 동안은 안전하다는 뜻이었다.</p>  
<p>어쩌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을 수 있을지 몰랐다.</p>  
<p>진우는 얼마나 버텨야 하는지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푸른 불꽃의 숫자를 확인했다.</p>  
<p>'이제 남은 건 30개...'</p>  
<p>30분만 버티면 된다!</p>  
<p>하지만 그것은 진우의 실수였다.</p>  
<p>푸른 불꽃을 세는 동안 또 진우 쪽의 석상들이 제단 쪽으로 접근해 왔고.</p>  
<p>끼이이이이익-</p>  
<p>"으으으... 으아아아악!"</p>  
<p>진우의 반대편에 서 있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 나갔다.</p>  
<p>등 뒤에서 자꾸만 들려오는 기괴한 소음에 그만 겁을 집어먹은 것이다.</p>  
<p>그가 제단을 내려가자 곧바로 붉은 불꽃 하나가 꺼졌다.</p>  
<p>"안 돼!"</p>  
<p>진우가 소리쳤다.</p>  
<p>하지만 실성한 듯 달리던 남자는 다수의 예상과 달리 열린 문으로 무사히 빠져나갔다.</p>  
<p>"뭐, 뭐야? 성 씨, 어떻게 된 거야? 저 사람 살았는데?"</p>  
<p>진우는 문과 반대 방향이어서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없었다.</p>  
<p>"뭔가 달라진 건 없어요?"</p>  
<p>"문이... 문이 조금 닫혔어."</p>  
<p>"문이 닫히고 있나요?"</p>  
<p>"아녀. 아녀. 저 사람이 내려가고 나서 조금 움직이고는 멈췄어."</p>  
<p>진우는 남자가 제단을 내려갔을 때 붉은 불꽃 하나가 바로 꺼졌던 것을 기억해 냈다.</p>  
<p>'아뿔싸!'</p>  
<p>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.</p>  
<p>제단 위에 서 있는 내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의문이 드디어 풀렸다.</p>  
<p>어째서 이것이 신앙심의 증명인가?</p>  
<p>그 문제의 대답이 떠올랐다.</p>  
<p>그것은 한쪽 다리가 날아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만 균형을 지탱할 수 있는 진우에게는, 최악의 조건이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'열린 문'은 사실 함정이었다.</p>  
<p>눈에 보이는 가짜 희망!</p>  
<p>제단에 올라서 있던 사람들이 열린 문을 보고 한꺼번에 제단을 내려가면 붉은 불꽃이 모두 꺼지고 문은 완전히 닫혔을 것이다.</p>  
<p>남은 것은 피와 비명의 향연뿐.</p>  
<p>반면 '제단'은 약속된 땅이었다.</p>  
<p>각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전원의 생존이 보장되는 장소였다.</p>  
<p>보이는 가짜 희망이냐, 보이지 않는 약속이냐.</p>  
<p>세 번째 규율 '신앙심의 증명'이란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도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리라.</p>  
<p>여기서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.</p>  
<p>첫 번째 변수는 진우의 존재였다.</p>  
<p>원래 열린 문을 보고 뛰쳐나가야 했을 사람들이 진우의 대답을 듣기 위해 멈춰 서는 바람에 전원 이탈로 문이 닫히는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.</p>  
<p>'운이 좋았다.'</p>  
<p>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다.</p>  
<p>앞선 두 개의 규율을 모두 진우 혼자 알아내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예기치 못한 두 번째 변수가 발생했다.</p>  
<p>이탈자가 나오고 만 것이다.</p>  
<p>눈앞에 있는 희망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?</p>  
<p>뻔한 문제였다.</p>  
<p>진우를 부축하고 있던 남자도 진우를 내팽개치고 뛰쳐나갔다.</p>  
<p>송 씨가 황급히 손을 뻗어 휘청거리는 진우의 등을 잡아 주었다.</p>  
<p>슈욱-</p>  
<p>남자가 제단을 내려가자 붉은 불꽃이 하나 더 꺼지며 그만큼 문틈이 또 줄어들었다.</p>  
<p>그그그-</p>  
<p>"어, 어!"</p>  
<p>김 씨가 두 번째 이탈자를 보고 손가락질했으나, 첫 번째 이탈자와 마찬가지로 그도 무사히 빠져나갔다.</p>  
<p>진우가 붉은 불꽃의 숫자를 확인하고는 소리쳤다.</p>  
<p>"움직이지 마세요! 더 이상은 안 돼요!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